

ETSI TA17/GA16 참가보고

장명국/표준1부장

유럽의 지역표준화기구인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s Institute)의 제17차 기술총회(TA:Technical Assembly)와 제16차 총회(GA:General Assembly)가 지난 4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동안 프랑스 남부해변의 휴양도시인 니스의 Acropolis Conference Center에서 열렸다.

필자는 지난 4년간 주로 ITU관련업무만 담당하다가 조직변경으로 인해 금년도부터 ETSI를 담당하게 되어서 같은 표준화분야라도 국제와 지역표준화의 성격, 기능, 구조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이번 회의를 다녀왔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ETSI의 설립배경 및 간단한 역사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980년대초에 CEPT(유럽 전기통신 주관청회의)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전기통신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기술개발의 가속화, 산업체, 연구소, 사용자 집단등 관련 집단들 사이에서 자발적 표준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1987년 6월에 CEC(유럽 공동체위원회)에서 발표한 녹색(Green Paper)의 권고에 따라 CEPT가 주로 처리해 왔던 표준화작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주관청뿐만 아니라 통신망사업자, 제조업체, 이용자, 시설망 제공업체, 연구단체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ETSI가 1988년 4월에 설립, 제1차 기술총회는 그 해 6월에 개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본부는 프랑스 니스근처인 Sophia Antipolis에 두고 있다.

금번 회의는 유럽각국의 통신망 사업자, 제조업체 등 모두 200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EWP(ETSI Work Program) 변경사항 승인, 각 위원회의 활동현황 및 계획승인, GA

및 관련 TC의 의장단 선출, '92년도 예산 결산 및 '94년도 예산편성 지침 토의등 수많은 안건들을 5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처리키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연장개최되었다.

제17차 기술총회와 제16차 총회에서 논의·결정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 참석자 현황

(표 1) 기술총회:총200명(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구분	기관수	참가지수	구분	기관수	참가지수
주관청	20	29	준회선	2	4
제조업체	49	61	참관자	6	7
공중망사업자	23	46	* 카운슬러	1	1
사용자	9	11	신규신청(회원)	4	5
초청자	7	8	신규신청(참관)	1	1
사무국	1	27	계	123	200

(표 2) 총회 : 총139명(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구분	기관수	참가지수	구분	기관수	참가지수
주관청	19	23	준회선	2	4
제조업체	31	32	참관자	6	7
공중망사업자	21	31	* 카운슬러	1	1
사용자	3	3	신규신청(회원)	6	9
초청자	1	21	신규신청(참관)	7	8
계	97개 기관 139명				

* 카운슬러는 CEC(유럽공동체 위원회)를 지칭함

회의의 개요

ETSI의 제17차 기술총회는 4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개최되었으며 제16차 총회는 4월 8일, 9일 양일간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 한국의 참석자는 필자 외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소) 벨지움사무소의 최명한 선임연구원을 포함하여 모두 2명이였다.

한편 유럽의 각국에서 참석한 대표 외에 Guest로 초청된 표준화기관의 대표로는 ITU의 표준화국장인 Mr. Irmer를 비롯해 일본 TTC 1명, 미국 FCC, ECSA, T1위원회에서 각 1명씩 모두 8명이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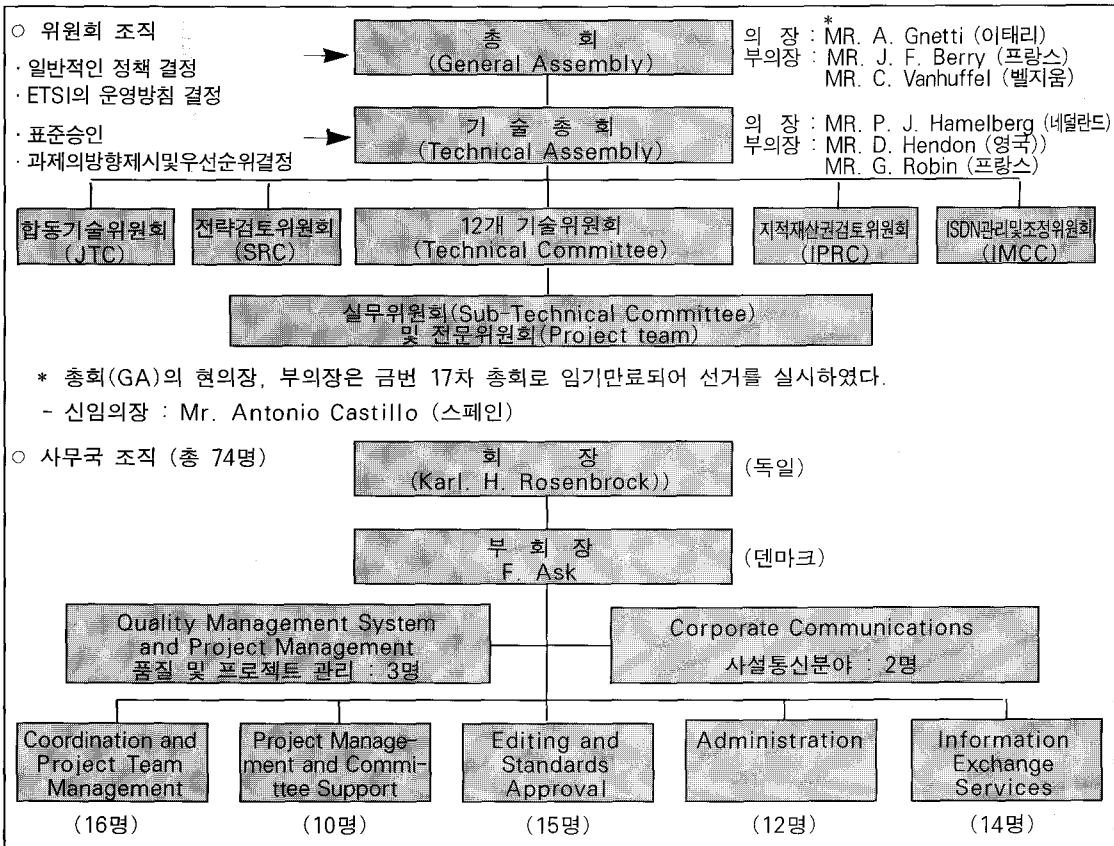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ETSI조직은 일반적인 정책과 ETSI 운영방침, 예산등을 결정하

는 총회(GA)와 표준을 승인하고 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우선순위를 승인하는 기술총회(TA)가 있으며 그 산하에 합동기술위원회, 전략검토위원회, 지적재산권위원회, ISDN관리 및 조정위원회와 여러개의 기술위원회 등을 두고 있으며 기술위원회는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한편 상기위원회 조직의 운영지원, 관리 및 예산수립, 대외협력 등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사무국의 조직이 표에 나와있으며 현재모두 74명이 근무하고 있다.

각각의 회의에서 토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 ETSI의 조직



회의의 내용

제17차 기술총회(Technical Assembly)

- 1) 의장의 개회와 함께 사무국에서 준비한 EWP SURVEY(EWP 수행의 개선을 위한 설문서)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며, 이 설문서에는 표준화우선순위, 관리개선방법, 표준화협력 및 수준향상방법등에 대한 문항이 들어있다. (당일 사무국에 제출토록 요망)

* 관련자료 : EWP SURVEY 및
결과분석 도큐먼트(TD. 56)

- 2) 지난 11월 제16차 기술총회 이후 변경된 ETSI의 표준화과제 계획(EWP)이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다. (Doc. 20, 21, 22, 23 과 각 Addendum)

- 현재 지난 기술총회에서 승인된 약 1200개의 과제항목(Work item)이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 212개의 신규과제가 추가되고, 98개 과제가 중지되었으며, 184개 과제가 변경되었으므로 모두 1300개 이상의 과제항목이 진행중 또는 예정이다.
- 지난 TA이후 완료된 과제항목은 모두 106개로써 이미 발간·배포중이다.
- * Standstill로 새로 제안된 과제는 모두 104개로 이것들은 모두 6월 1일 이후 효력이 발생된다. (효력발생 적용일은 지난 TA에서 승인후 4~6주로 결정)
 - 효력발생기간에 대해 격론을 벌였으나 24개월, 18개월의 거수투표가 동수가 되어 21개월(Provisonal Decision)로 잠정 결정하였고 Ad-hoc 그룹에서 검토후 최종 결정
- Standstill 리스트에서 해제된 항목은 모두 12개이다.

- Temp. Doc 41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제의 부진현황에 대한 분석결과가 소개되었으며, ETSI회장인 Mr. Rosenbrock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Start of Work"과 "STC Approval"사이의 초안작업 공정에 필요한 다음 두개의 새로운 방법을 도입키로 결정(스웨덴의 반대는 주석으로 남기기로 함)

-Table of Contents and Scope text available

-Stable draft available

- 3) ETSI의 IPR정책 및 이행계약서(Undertaking)가 지난 3월 18일에 개최된 제15차 총회(GA)에서 토의를 거쳐 승인되었으며, '93. 11. 1부터 발효된다고 언급하였으며 IPRC(지적소유권 위원회)존속 여부에 대하여 토의했으나 제18차 기술총회에서 제안을 받아 다시 토의키로 결정
- 4) ATM(Asynchronized Transmission Mode)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기술총회 산하 기술위원회인 TC ATM(Advanced Testing and Methods)의 명칭을 TC MTS(Methods for testing and Specification)로 변경
- 5) ETSI는 타표준화 단체의 표준개발방식과는 다르게, 특정과제를 수행하는 전문위원회(Project Team)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위원회들은 CWP(Costed Work Program)과 VWP(Voluntary Work Program)들의 표준화과제 계획에 따라 특정과제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를 제출한다. 그 결과는 표준(안), 보고서, 가이드라인, 기술기준안 등의 형태로 제출되어진다.
 - CWP : ETSI 예산에 의해 수행되며 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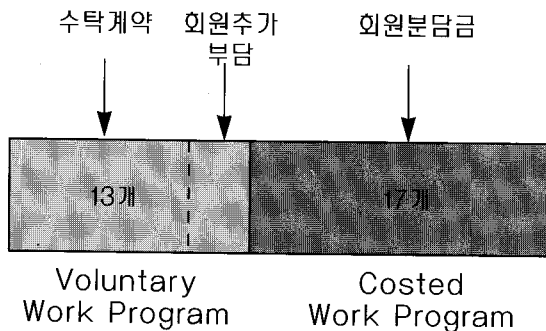
* Standstill이란?

EWP의 Standstill 과제로 지정되면 별도로 각 국가별로 그 과제들에 표준화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무를 뜻한다.

표준안, 보고서, 지침서등을 만든다.

- VWP: CEC, EFTA등과 계약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으며, 표준화과제 수행 결과는 주로 표준안, 기술보고서, 기술기준안 등의 형태로 제출된다.
- 6) 상기 전문위원회들의 '92년도 활동결과 및 '93년도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현재 총 30개의 전문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중 17개는 Costed Work Program으로 나머지 13개는 Voluntary Work Program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124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 4] 표준화 활동 재정구조



- 7) 16차 기술총회시 CWP 운영개선 토의결과 제안된 "Waiting List"개념은 기본원칙만 승인되었고 금번 회의에서는 실제 관리운영 세칙이 논의되었다. 이 Waiting List개념은 추후에 CEC/EFTA와 협의하여 VWP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 Waiting List란? CWP 표준화 과제중에서도 당해년도 승인된 Project Team(전문위원회)들이 절약한 또는 소모 못한 예산, 인력을 Waiting List에 들어있는 PT에 투입하여 다음 TA의 승인없이 즉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 8) 전문위원회는 기술총회(TA)에서 Terms of Reference를 승인받아 운영되며, 금번 회의시 TC MTS의 과제 계획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

- 기존의 TC MTS에 할당된 PT37, 38, 39의 Mampower중 2M·M(Man, Month)를 PT"D"TTCN Style Guide에 전환하여 과제작업 시작 요청
 - 또다른 PT"E"인 Methodology Guide for SDL Production을 우선 Waiting List에 넣었다가 93년말 또는 94년도초에는 과제업무를 수행토록 제안
 - 제안된 PT X-V가 수행할 Partial and Multi-Part TTCN Text Suites를 Waiting List에 추가
- 9) 16차 기술총회에 제안되어 금번 회의시 결정기로 했던 두 개의 신규 수탁계약안과 1개의 GSM에 관련된 BC-T-045-SI등 3개의 수탁계약안을 승인하여 VWP에 추가기로 하였으며 그외 5개의 CEC의 수탁계약안에 대해서는 Information으로 접수 또는 조건부 접수로 결정되어 각 관련 TC에서 제안서를 내기로 하였다.
- BC-T-042-SI (TD.14) :
Improvement on the methods of measurement for radiation
 - BC-T-043-SI (TD.15) :
Achitecture of HIPERLAN
 - BC-T-045-SI :
Special GSM interworking requirements.
- 10) EBU/ETSI JTC 의장이 제안한 유럽디지털 TV방송에 관련된 PT과 관련업무추진 지침을 만들어 표준을 빨리 제정하자는 제안(TD.21)에 따라 TA에서 이 과제를 VWP에 넣어 추진기로 결정하였으며 재정 문제는 사무국에서 협의조정하기로 하였음.
- 11) 관련 TC에서 작성하여 사무국에서 취합한 14개의 신규 및 기존 PT의 업무추진지침들에 대한 제안을 토의하여 승인하였다.
- 12) 공중망 통신사업자를 위한 공동호출 알고리즘 사용에 대한 스위스, 영국등의 제안에 대해 토의하였고, 타멤버들에 적극적인 제안을 유도하였으며, 법적·전략적·기술적 측면의 검토가 동시에 추진되기 위해 차기

회의시 추가논의하기로 결정

13) 유럽의 표준인 ETS와 I-ETS(잠정표준)에 대한 TC에서의 선택기준에 대해 오랫동안의 논란과 Standstill 개념의 도입으로 더욱 복잡해져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키 위한 사무국의 제안으로 Ad-hoc 그룹의 설치운영과 관련사항들이 제출, 토의되어 승인되었다.

- TA산하 소규모 Ad-hoc 그룹(5~6명)의 신설과 TA18의 결과보고 (Mr. Hendon 이 의장)
- 이 그룹은 각 TC/STC에서 작업결과를 어떤 기준으로 ETR, ETS 또는 I-ETS로 구분하여 수행하는가? 에 대한 확실한 방안 마련.
- 계획된 작업결과의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함축과 Standstill사항도 고려되도록 방안 마련.

14) IMCC(ISDN Management and Coordination Committee : ISDN관리 및 조정위원회)는 '91년말까지 ISM(ISDN Standards Management Committee)에서 하던 일을 확대보강하여 ISDN관련 표준관리, 관련 Report 작성제출, 시큐리티외에 관련 TC/STC 및 PT등의 업무연계, 조정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지난 2월 4~5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금번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았다. 다음 6차 회의는 8월 30일~9월 1일에 프랑스, 소피아 안티폴리스에서 개최된다.

- IMCC에서 그동안 과제항목 DTR/IMCC - 0001로 보고서 ETR 076을 발간 배포했다. (ISDN Standards Guide)
- 제11차 기술총회에서 배정된 IMCC 수탁계약을 1년간 더 연장해 달라는 요구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다음 회의(TA18)에서 재토론하기로 하고 토론시 문제된 부분을 검토해 해결방안을 IMCC에서 TA18에 제출토록 결정

15) 공중망에 관한 전략검토위원회인 SRC4

(Strategic Review Committee4)에서 권고한 39개의 권고들에 대해 관련 기술위원회 (NA, BT, SPS, TM, HF등)의 검토 보고가 있었으며, 특히 Rec.34, 35, 36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 권고 34 : Interconnection of Terminal Node (관련 TC : BT, NA, SPS)
 - 권고 35 : Interconnection of Nodes and Terminal (관련 TC : BT, NA, SPS)
 - 권고 36 : European practices for Interconnection (관련 TC : BT)
- 16) 시설통신망에 관한 전략검토위원회 SRC 5에서는 현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였는데, 공중통신망과 시설통신망에 관련된 표준화, 정책 및 전략등의 상층부문의 언급과 시설통신망관련 Regulation(기준)을 최소화하도록 제안되기도 했다. 금번 회의시 보고서 작성 목차 및 방법도 논의되었기 때문에 향후 18차 기술총회에 보고서 및 관련 REC. (권고)를 제출할 예정이다.

17) 동유럽의 표준화 중요성 및 활동증진을 위해 ETSI는 각국의 고위대표 약 5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끌고 2월 중순경 약 1주일간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등의 수도를 방문하여 ETSI의 활동 및 실적 소개, 표준화관련 홍보, 관심사토의등을 하였으며, 헝가리 주관청으로부터 정식회원 가입신청을 접수하였고, 불가리아에서는 NSO Mou(양해각서)를 교환하였다.

- 18) 외부기관관계 문제 토의
- CEN과 CENELEC과의 공동협조로 개발된 Direct-to-Home(DTH)Satellite 수신기와 경보장치에 관해 ETSI와 CENELEC의 협정문제를 토의하였으며, 스웨덴이 이 문제를 Regulation(기준)과 관련된 문제라고 언급하였기 때문에 약간의 주석을 남기기로 하여 채택
 - ITU와의 협력문제에서는 Mr. Irmer (TSB국장)가 ITU추가전권위원회의 (1992. 12. 스위스, 제네바), WTSC 제

- 1차 회의 (1993. 3. 핀란드 헬싱키) 결과를 발표했다.
- ETSI와 ERC(European Radio-communication Committee)와의 협력 문제에서는 무선기기시스템 및 장비는 반드시 무선분야의 규제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CEPT-ERC협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관련 세부사항들을 TC RES에서 TA에 보고토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금번 회의시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 ETSI와 ERC의 협력절차에 대해 방안 마련
 - draft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만들 것
 - 기접수된 각종 코멘트에 대한 검토, 평가, 절차를 개선·할 것
 - ETSI-EBU (유럽방송연맹)은 2개의 MAC/Packet 사양을 개발하였는데, D2-MAC/Packet, SPB 489는 ETSI 표준제정절차를 밟고 있으나, D-MAC/Packet, SPB 491은 진행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표준제정요구가 있어, 이를 채택하였다.
 -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ITSC 3 회의 결과 요약보고가 있었다.
- 19) TC(기술위원회) 조직중 TC PS(Paging System)의 임무가 종료됨에 따라 TC자체의 해체 결의 및 향후 ERMES(European Radio Message System) 유지 보수업무의 TC RES로의 이관을 제안하고 그 업무를 종료하였다고 보고했다.
- ERMES의 유럽표준제정(ETS 300 133)
 - Technical Report 발간 (1992년 7월)
 - ACTE/NTRAC인 무선규제기관이 ERMES 수신기의 공통기술규준(CTR)의 필요성을 느껴 ETSI에게 수신기에 대한 TBR(기술기준) 제정을 위임하여 현재 그것을 ETSI사무국에서 절차 (투표 및 공식)를 밟고 있다.
- ERMES 표준이 CCIR WG8A에 제출되어 Rec 539 Annex 2로 포함되었다.
- 20) TC조직에 관한 또다른 문제들은 Multi Media의 응용 서비스에 대한 프로젝트관리 및 조정그룹 (MMG and MCG)의 구성문제에 대해 토의하였으나, 차기 회의에서 수정방안에 대해 토의후 결정하기로 하였음. 그리고 IN(지능통신망)에 관련된 전략검토위원회(SRC)의 구성을 TC BT 부의장이 제안하여 토의하였으나, Network의 Private와 Public의 개념상의 차이로 논란이 있어 차기 TCC(TC Coordination Committee)에서 검토후 기본방침 결정하기로 하였음.
- 21) 다음의 기술위원회(TC)의 의장과 IPRC(지적재산권위원회) 의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의장후보 추천을 각 회원에게 보냈으나 이에 대한 추천이 없어 현 의장들을 재지명하였다. 단, IPRC는 현 의장의 사퇴 의사에 따라 2명의 후보가 있었으나 IPRC 존속문제와 연계돼 차기회의시 검토, 결정하기로 하였다.
- TC BT Mr. R Koxholt
 TC EE Mr. M Battini
 TC HF Mr. W Noe
 TC NA *Mr. B Moore(ITU-TS SG 13 의장으로도 선출)
 TC RES Mr. C Van Diepenbeek
 TC SPS Mr. G Eriksson
 TC TE Mr. G Lawrence
- * ITU-TS SG 3 의장 활동관계로 조만간 새의장을 선출할 예정
- 22) 제16차 기술총회(TA)에서 논의되었던 900MHz대의 기차/지상이동체 무선통신시스템의 ETSI 표준화에 대해 TC/RES와 SMG 및 UIC(국제철도 연맹)의 관계자로 구성된 Ad-hoc 회의를 2차례 개최하였다. 따라서 1994년 말까지는 현재 UIC에서 사용하고 있는 TETRA 방식과 기존의 유럽 이동통신방식인 GSM 방식중에 어떤 방식을

택하여야 하며, 어떻게 상호접속, 통화가 가능한가를 연구케하여 결과제출토록 일정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한편 UIC에서는 이 연구를 위해 관련 TC에 VWP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23) CB(Citizens Bands)무선기에 대한 AM/SSB의 표준화를 EWP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지난 TA10 이후 계속 논의하였다.

- 지난 1월에 9차 TC/RES 회의(베를린)에서 어렵게 타협한 안을 TD.4로 제출되었으나 영국 벨기에 등은 자유경쟁시장원칙에 입각해 ETSI에서 표준화하는 것에 찬성하였고, 스웨덴은 Regulatory, EMC Directives, Interference 문제등으로 반대하였으나, ETSI Work Program (EWP)에 포함하기로 결정되었으며 I-ETS 또는 ETS로의 결정은 관련 TC에서하기로 하였다.

24) Security 문제에 관련하여 제기된 유럽공중망사업자의 공동암호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 현재 각 사업자가 각기 개발 또는 연구에 중복투자를 피해 ETSI의 NA/STAG (Security Experts Advisory Group)에서 EURESCOM과 협의하여 관련권고를 만들어 공동암호체계를 개발키로 결정

25) ETSI 표준의 내용 또는 진행중인 표준안에 대한 비회원들의 Appeal(호소) 절차 대해 사무국에서 제안된 문서 (Doc.5)를 갖고 토의를 하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 회의시 다시 토의키로 하였다.

- Doc.5 절차를 기본으로 하여 6월 이전에 각 회원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로 하였음

26) ETSI 표준을 구현하기 위한 시기를 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며, CENELEC에서 적용하는 절차가 각 표준마다 최종기한이 정해져야한다고 ETSI와 NSO(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간 협정의 기본원칙을 제14차 GA에서 승인되었으며, 그

것을 Transposition Agreement라고 부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ETS에 대한 국가별 통보기한 - doa (ETSI가 ETS를 발간한 날로부터 3개월)
- NSO들의 공식발표 또는 인정서 발행기한 - dop/e (doa이후 6개월)
- 상충되는 NSO표준의 철회기한 - dow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dop/e와 같다. 즉 doa이후 6개월)

27) TBR(Technical Base Regulation : 기술기준)에 대한 각 NSO의 임시승인 절차에 관한 ETSI-NSO간의 협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현단계에서는 각 NSO와의 MOU가 많이 승인되어야만 추진되므로 사무국에서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다음 회의시 재토의하며, D.46으로 제안된 스웨덴의 ETSI규정변경 사항은 부결처리되었음.

28) RISE(Retrieval and Interchange of Standards in Europe)의 진행현황보고 및 시범운용이 있었다.

- VSAT, ISDN 및 X.25를 활용한 범유럽 정보유통망 구축
- ODA를 이용한 유럽표준도큐먼트 자료실 운용등

제16차 총회 (General Assembly)

- 1) 의장의 개회선언에 이어 Guest로 초청된 TTA, TTC, T1 Committee등을 소개하였으며 사무국에서 배부한 Policy Survey (정책설문지)를 작성,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2) ETSI회원 가입에 대한 안전처리결과 ETSI 회원이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총 27개국인 정회원국임) 그리고 새로운 정회원에게 Certificate(회원증)를 일일이 수여하였다.
- 3) Finance Committee에서 제출된 보고서

(표 5)

구 분	14차 총회	16차 총회	증 감
정 회 원	316	330	+ 14
준 회 원	8	8	
읍 서 버	62	63	+ 1

* 15차 총회는 IPR정책 및 이행계약서만 다른 총회이므로 회원변동상황이 없음

(Doc.4)와 1992년 재정상태 및 감사보고서 (Doc.3, 5 Rev 1, 7) 등에 대한 승인이 있었으며, '92년도 Annual Report와 사무국의 현황보고가 있었다.

- 4) 1994년도 예산준비사항에 관한 사무국에서 마련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대해 토론하였다. Inflation 조정범위를 전체비용의 5%를 적용하라는 원안에 대해 전체가 아닌 Unit별로 검토해 적용하자는 안이 채택되었고 최종지침은 다음 총회 (GA17)에서 결정기로 하였음.
- 5) 총회 의장인 Mr. Gnetti와 부의장인 Mr.

Vanhuffel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임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였다. 의장의 경우 지원자가 2명이 있기때문에 개인별 가중투표 (Individual Weighted Voting)을 실시하였고 부의장의 경우는 단독후보로써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신임의장: Mr. Antonio Castillo(스페인)
 득표율 - 1차 63%, 2차 66%
- 신임부의장 : Mr. Vanhuffel (벨기에)
 - 현부의장으로 재선출됨

차기 회의일정

- 1) 기술총회 (TA)
 - 제18차 회의 : '93. 10. 4 ~ 6
 - 제19차 회의 : '94. 3. 21 ~ 23
- 2) 총회 (GA)
 - 제17차 회의 : '93. 11. 9 ~ 10
 - 제18차 회의 : '94. 3. 24 ~ 25

회의참석 소감

1) 협회설립후 4년간 주로 ITU관련업무만을 주업무로 수행하여 ITU에는 친근감을 갖고 있었으나 지역표준화 기구인 ETSI 기술총회 및 총회는 처음 참석하고 회의장소도 낯설은 곳이라서 약간의 생소감과 호기심이 있었지만 미지에 대한 도전자세로 임하였다.

ETSI는 ITU와 달리 기본표준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본, 기능표준을 포함해 그 수량 및 업무량이 방대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조직도 상당히 많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잘 연계하여 효율적 운영을 기하는 점이다. 또한 타지역과는 달리 CEC를 비롯한 여러종류의 통신관련기구 방송관련기구 표준화관련조직, 연구기관등 매우 복잡한 상하, 좌우관계를 형성하여 관련 절차 및 관계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될 것 같다.

- 2) 참석자 분석표를 보면 주참석자가 주관청 출신보다는 제조업체, 공중망사업자, 사용자등에서 대거 참석하여 국제표준화 제정분야에서의 민간주도와 사용자 영향력 증대를 실감하게 되며, 서로 자국 또는 소속회사의 이익을 대변키 위해 많은 의견 제시 및 진지한 토의태도는 우리나라의 표준화 활동에 관련된 많은 사람이 배워야 할 것 같다.
- 3) ETSI에서 제정되는 표준 또는 진행되는 표준화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통신제품 수출 및 시장개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항상 국내에서 참석하여 진행사항 파악 및 관련자료 분석 등을 하여 국내 관련 단체에게 배포해 주어야 하며, 전문성을 유지키 위해 최소한 1~2명은 계속 회의에 참가토록 해야할 것이다.